

HOME > 경제 > 경기

수원상의, '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' 참여 기업 모집

尹 이세용 기자 | ④ 승인 2026.01.20

60세 이상 채용 기업 대상 1인 최대 270만원 인건비 지원사업 운영



수원상공회의소 전경. <수원상공회의소 제공>

수원상공회의소가 60세 이상 채용 기업에 1인 최대 27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한다.

수원상의는 "지역 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'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'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"고 19일 밝혔다.

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(1966년생 및 이전 출생자)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.

지난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온 수원상의는 그동안의 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역 기업의 신청 접수 및 제반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.

지원 자격은 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다.

참여 기업은 1인당 최대 2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며, 18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8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특히 2026년도 사업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장기 근속 지원금 수령 절차가 기존보다 간소화(3회 지급)된 것이 특징이다.

수원상의가 운영하는 지원 유형은 '일반형'으로서, 기업이 시니어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3개월 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, 이후 계속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.

해당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,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사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.

다만 2026년 1월 입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채용 이후 사업 신청도 가능하다.

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이세용 기자 lsy@kihoilbo.co.kr



이세용 기자

저작권자 © 기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